

“광장 이데올로기의 미디어 재현 분석”

최은경(성공회대학교)¹⁾

1. 들어가며

-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권력형 비리와 민간인, 최순실이 청와대 정책에 깊이 관여한 것이 보도되면서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이 주목을 받음.²⁾
- 2016년 25일 1분 30초 분량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녹화 사과 방송 이후, 비판이 더욱 거세짐.
- 2016년 10월 27일 최순실은 세계일보와 단독인터뷰를 했으나, 문제의 태블릿이 자기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후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에 탄핵과 하야가 오르기 시작함. 당시 주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탄핵과 하야를 금기시 함. 하지만 수많은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기 시작.³⁾
-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 남편 정운희, 딸 정유라가 대통령의 측근으로 벌인 비리와 농단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2016년 10월 29일. 광화문에서 첫 촛불집회가 시작됨. 이후 매주 토요일 저녁 광화문에서 열림.
-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논쟁,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취재와 스캔들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의료계, 학계 비판이 커짐.
-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생방송 사과 방송(약 9분).
- 2016년 11월 1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20대 국회 국정조사가 열림
-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12월 21일에는 특별검사 수사가 시작됨.
- 2017년 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정규재 TV’와 단독 인터뷰를 함.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 되고,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됨.
-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가짜뉴스가

1) eunyoung1994@daum.net

2) 최순실이 버리고 간 태블릿 PC에서 최순실이 44개의 대통령연설문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받았다고 단독 보도함. JTBC. 2016년 10월 24일.

3) 10월 26일 서강대와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전국 40여개 대학의 대학생과 교수들이 시국 선언에 참여했으며, 11월 2일 100여개의 학교로 늘어남.

급속도로 확산됨

2. 왜 광장 이데올로기인가?

- 2016년 10월 29일. 전국 각지에서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서울 광화문/서울 광장에서는 대규모의 집회가 열림. 11월 1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의 시민들이 운집함. 이는 2008년 6월 10일 촛불 시위 인원 70만명을 넘는 수치. 이후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열림.
- 한편 2016년 12월 9일 국회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주축으로 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및 탄핵 반대를 주제로 집회를 시작함.
- 이후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 시청, 서울역 광장은 촛불집회와 이에 반대 의견을 가진 태극기 집회가 열림.
-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하는 촛불집회 측과 이에 거세게 저항하는 태극기 집회의 갈등이 심화됨.

3. 광장의 주요 이데올로기와 갈등 사례

- 사례 1. 대통령 박근혜의 비선에 대한 옹호와 비판
- 사례 2.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이 된 태블릿 PC 사건을 보도한 JTBC에 대한 지지와 반대
- 사례 3. 촛불집회는 빨갱이, 종북, 좌파, 공산당 세력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과 옹호
- 사례 4.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과 헌법재판소의에 대한 기대와 불신
- 사례 5. 국정농단의 대상(재벌, 학계, 의료계, 공무원, 검찰 등)에 대한 적폐청산과 음모론

4. 광장 이데올로기와 세대 갈등

-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은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두고 의견이 나뉘면서, 갈등과 불신이 심화됨.
- 동시에 촛불집회는 진보, 좌파, 젊은 세대들의 광장이고, 태극기 집회는 보수, 우파, 중장년층들의 애국 집회라는 인식이 확산됨
- 주류 언론이 촛불집회만 보도하는 것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태극기 집회를 지지하기도 함.
- 주류언론과의 소통을 거부한 결국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매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담론을 생산하기 시작함. 예를 들면 <프리덤 뉴스>, <애국일보>, <미래한국>, <미디어워치>, 박사모 다음 카페, 유튜브 탄기국 방송, 카카오와 라인, 밴드, 윤창중, 정규재의 팟 캐스트 등.

5. 연구문제

- 주류 언론은 촛불/태극기 집회가 열린 광장을 탄핵 정국 시기별로 볼 때,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평화시위/폭력시위)
- 주류 언론은 촛불/태극기 집회가 열린 광장의 참여자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편파적/공정한 보도)
- 주류 언론은 촛불/태극기 집회가 열린 광장의 갈등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분열을 조장하는가 화해시키려 하는가)

6. 연구 방향 및 기대

- 이에 본 연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시작된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각각 어떤 주요 담론을 생산했는지 탐구함으로써 한국 사회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공간, 즉 광장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의 이데올로기는 어떤 특징과 정치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탐구할 예정임.
-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으로 ‘촛불의 승리’, ‘광장 정치의 힘’이라는 찬사로 제도의 정치가 실패한 것이라는 비판이 높는데, 광장 이데올로기를 재현한 미디어는 과연 어떤 태도로 분노의 정치, 광정정치를 이해하고 기록했는지 분석할 예정.